

## 국 외 소 식

### ● 애완견, 심장질환 치료에 도움

애완견의 병원 방문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병원의 캐시 콜 간호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11월 15일 미국 심장협회 회의에서 애완견을 이용한 치료법이 불안감과 긴장감은 물론 심장과 폐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평균연령 57세인 76명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애완견이 함께 방문한 경우와 사람만 방문한 경우, 아무도 찾지 않은 경우로 나눠 환자의 생리학적 변화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애완견과 사람이 함께 찾은 환자의 불안감이 표준계측단위를 기준으로 24% 감소했고 방문자만을 맞이한 환자의 경우 10% 감소했지만 손님을 맞지 않은 환자의 불안감 수치는 변화가 없었다.

긴장 상태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호르몬 수치 또한 애완견과 사람을 함께 만난 환자는 17%정도의 감소율을 보였고 사람만 만난 환자는 2% 줄어들었지만 방문자가 없었던 환자는 7% 증가했다.

심장 압력의 경우 애완견과 사람이 만난 환자가 10% 줄어든 반면 사람만 만난 환자는 3%, 방문자가 없었던 환자는 5% 각각 늘어났고 폐 압력 역시 애완견과 사람이 함께 찾은 환자에게는 5%정도의 감소가 관찰됐으나 나머지 두가지 경우에는 모두 증가했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클리블랜드 병원의 마크 질리노프 박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스크립스 메모리얼병원의 심장전문의 조지 데니시 박사는 환자들이 애완견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2005년 11월 16일

### ● 나리타 공항에 애완동물용 호화호텔 오픈

해외여행자가 애완용 개나 고양이 등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초호화 애완동물용 호텔이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 12월 1일 문을 열었다.

11월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트인로얄 나리타에어포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설은 개나 고양이 등을 최대 25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일본내 최대규모의 애완동물전용 호텔이다.

해외여행시 출발직전까지 애완동물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사람에게도 쾌적한 호화설비를 갖추고 있는게 특징.

모든 방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완비돼 있음은 물론 애완동물들이 갖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구비한 놀이방과 방사용 옥외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하루 4천엔(약 3만6천원)의 케빈형에서 부터 2만엔의 호화 스위트룸까지 10종류로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며, 미용 시설과 동물병원도 병설돼 있다.

연합뉴스 / 2005년 11월 16일

### EU·업계, 동물실험 감축 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업계 대표들은 11월 7일 동물실험을 점차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제약 및 화학, 화장품, 생물기술 등 7개 관련 협회는 이날 유럽 집행위와 함께 토끼 실험 대신 인간 세포를 사용하는 방식을 비롯, 새로운 실험전략을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유럽의 업계와 연구실들은 30년 전에 비해 3배나 많은 연간 1천100만마리의 실험용 동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는 이런 동물 수를 200만 마리 이상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제품 안전성 검사 및 의약·수의학·치과 관련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 수가 4분의1 가량 줄어들게 된다. 권터 페어호이젠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물실험을 완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럽의 실험 동물 가운데 50%는 사람을 위한 약물과 생물학 연구용으로, 16%는 품질관리용으로, 10%는 독성 평가 등 안전 검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 운동가들의 동물실험 반대시위가 날로 극렬화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과격 시위가 중단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영국 정부는 과격행위 처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유럽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른바 'REACH'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승인) 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실험 책임은 정부에서 업체로 이관되며 업체들은 이에 따라 약 3만 종의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성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페어호이젠 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REACH를 준수하기 위해 390만 마리의 동물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시험 비용도 24억 유로가 늘어날 것"이라며 동물실험을 개선하고 줄이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함으로써 REACH에 따른 추가 동물실험의 7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이달 말 REACH에 관한 표결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 2005년 11월 8일

### AI 퇴치를 위한 국제회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위해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열린 'AI 퇴치 국제회의' 모습. WHO는 세계은행,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수역기구(OIE) 등과 공동으로 전세계 과학자, 공공보건 전문가, 의사, 정부관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9일 3일간 제네바에서 AI 퇴치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AP연합 / 2005년 11월 7일



### 폴 매카트니, 중동물학대 맹비난



지난 10월 3일 비틀즈의 전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미 뉴욕에서 가진 자신의 첫 동화책 '구름 속 저 높이 : 도시의 동물 이야기(High in the Clouds : An Urban Furry Tale)'의 사인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매카트니는 중국 광저우 모피 시장에서 개와 고양이가 잔인하게 도살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본 뒤 "국에서 절대로 공연을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1월 28일 보도했다.

로이터 / 2005년 11월 28일

### 가짜약도 물리적 효과 낸다

가짜약(플라시보) 효과가 심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 달리 실제로 물리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가짜약을 투여했을 때 환자의 두뇌에서 자연 진통물질이 분비되는데 그 물질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자들이 측정하는데 따른 결과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두뇌에서 어떤 현상에 대한 기대를 하는 기능이 상실된 환자의 경우 효능이 입증된 진통제가 전혀 듣지 않았다는 점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미시간대 연구팀은 최근 실시한 실험에서 건강한 젊은 남성들의 턱에 고통스러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소금물을 주사하면서 두뇌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실험자들에게 주사되는 약물이 진통제라고 말하자 피실험자들의 두뇌에서는 통각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자연 진통제 엔돌핀이 더 많이 분비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탈리아 토리노 의과대학의 파브리시오 베네데티 박사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가짜약을 투여하고 두뇌의 운동 통제부분에 있는 개별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했다.

그러자 환자들의 신경세포 활동이 둔화되며 환자들의 근육 경직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베네데티 박사는 환자들에 컴퓨터를 이용해 진통제인 모르핀을 투여하는 장치를 연결한 뒤 일부 환자들에게는 간호사가 가서 약을 주사하는 것처럼 꾸몄는데 자신의 몸에 약이 주입된다는 사실을 안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같은 양의 모르핀을 주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50%정도 더 높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베네데티 박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같은 실험을 했을 때 환자가 진통제 주사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진통제의 효과 확대 여부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짜약이 실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지만 이같은 연구 결과들은 의사들이 적어도 일부 난치 질환에 있어서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는데는 충분하다.

컬럼비아대의 신경과학자 토르 웨이저는 11월 28일 "당신의 기대감이 자신의 두뇌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데티 박사는 "가짜약 효과는 단일하다기보다는 다양하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5년 11월 29일

## 국 내 소 식

### ● 안양천 하류 오목교~목동교 850m, 수생식물·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안양천 하류 오목교~목동교 사이 850m 구간이 수생식물과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0억원을 들여 안양천 하류 동쪽 지역 2만9000여평에 야생조류 서식공간과 수생식물원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8월말까지 마무리짓는 이 사업은 수변공간에 야생 조류를 위한 서식처와 물을 정화시키는 수생식물원, 친수광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5호선 양평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모아 실개천을 그물망처럼 만들고, 지하수를 모아 만든 연못 주변에 갈대·물억새밭을 조성하는 한편 꽃창포원 등도 꾸밀 예정이다.

안양천 하류 오목교~목동교 사이 둔치는 폭이 50m에 이르는 곳으로 잡초가 우거져 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았다. 나머지 안양천 구간은 농구장·산책로 등 인공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경기 안양에서 발원해 안양시, 광명시를 지나 서울의 금천, 양천, 영등포, 구로구로 흘러드는 안양천은 길이 1만3950m로 한강으로 흘러드는 셋강 가운데 중랑천 다음으로 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양천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면 한강에 조류 서식공간이 대량 확보될 것”이라며 “서쪽 둔치도 동쪽과 비슷하게 꾸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 2005년 11월 29일

### 유기견을 보살피는 대곡중학교

“동물사랑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죠.” 대구 달서구 대곡중학교에는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거리를 헤매고 있던 강아지 ‘복동이’를 하굣길 학생들이 발견해 한달째 보살피고 있는 것. 버려진 개(유기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대곡중학교에서는 유기견을 보살피는 동물사랑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자희 교장은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 생각해 낸 프로그램”이라며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이는 동물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우쳐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구조한 동물들만 20여 마리. 길을 잃은 강아지를 다시 주인에게 되찾아준 사례만도 7건. 그 중 일부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가정에 입양되기도 했다.

이연제(1년) 학생은 지난 여름부터 고양이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다.

이 군은 “동물보호협회 자문을 받아 건강검진과 각종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자랑한다.

동물사랑을 통한 인성교육은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험 압박중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강아지와 함께 놀며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안정을 되찾기도 하고, 동물을 사이에 놓고 선생님과 학생이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학생 생활상담까지 하게 되는 등 마음의 벽을 쉽게 허물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대곡중의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일부러 학교에 동물을 내다 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구 교장은 “생명은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애완견을 분양하고 있으니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 2005년 11월 29일

### 🌐 공원에 애완견 풀어 놓으면 과태료

다음달부터 올림픽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꽃과 열매를 함부로 따는 행위,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야영, 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주차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를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고, 배설물 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 지정장소 이외에서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불법 주차 ▲무단 경작 ▲오토바이의 차도 외 출입 ▲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 행위 ▲공원내 서식 동물 포획 및 학대 등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공원 입장료를 신고한 것보다 높게 받거나, 시설물 파괴 등 공원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불법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관리, 불법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향신문 / 2005년 11월 27일

### 🌐 종근당 '타미플루' 독자 제조법 개발

종근당은 11월 30일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원료를 기존과 다른 독자적 방법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새 제조법이 기존 치료제의 원료물질인 시키믹엑시드 대신 당뇨병 치료제 발효 부산물을 사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이번 개발로 치료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함으로써 신속한 수급을 바탕으로 원활한 제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근당은 이미 타미플루의 독자적인 제조방법 및 샘플을 식약청에 제출했고 향후 자체 개발에 성공한 신제법을 국내외에 특허출원할 예정이다.

종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방법은 기존의 타미플루 제법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독창적인 제조방법"이라며 "기존의 합성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공정을 극복한 합성방법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데**  **수**

서울경제 / 2005년 11월 30일